

도플갱어/자아분열

Doppelgänger/Ich-Spaltung

1. 어원 및 개념 정의

'도플갱어 Doppelgänger'는 '복사' 혹은 '복제'를 뜻하는 프랑스어 'double'에서 차용된 독일어 'doppel'에 '가다, 걷다'를 의미하는 독일어 'gehen'에서 파생된 'gänger'가 붙은 단어로, 어원적으로는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어 'Doppelgänger'가 우리말로 차용된 도플갱어는 특정한 어느 한 사람과 비슷한 외모와 성격,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을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는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분신, 생령, 분신 복제' 등 여러 용어로 쓰이지만, 자신과 똑같은 환영을 본다는 뜻에서는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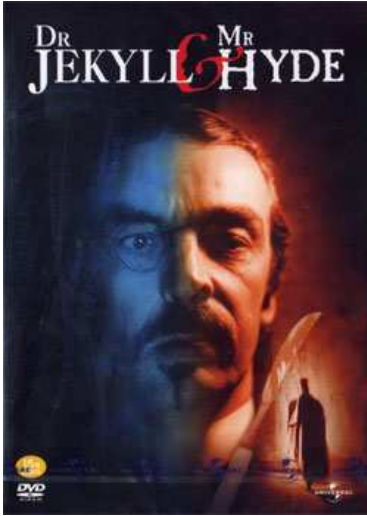
2. 도플갱어의 의미와 특징

예로부터 분신이나 환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독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도플갱어 이야기는 지역에 따라 상징하는 바나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도플갱어 현상은 분신이나 환영으로서 도플갱어를 보게 되는 현상, 즉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서 자신과 똑같은 대상(환영)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도플갱어는 한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의미한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혹은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인간은 선과 악의 두 측면(또는 이드와 초자아와의 긴장관계)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억제되어 있는 한 측면은 언제든지 특정한 계기를 통해 외부로 표출될 수 있다. 이 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평소와 다른 나의 모습도 도플갱어로 이해될 수 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도플갱어 현상은 자아의 분열된 형태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고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실제 성격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평소 자신이 바라던 이상형 혹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사람도 지나치게 자아도취가 심할 경우에는 스스로 환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도플갱어 현상으로서 분열된 자아의 분신을 보는 것은 머지않아 자신이 죽

을 것임을 암시하는 징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영화화된 지킬박사와 하이드>

다양한 현상과 해석 덕분에 도플갱어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등 각종 예술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로 이용된다. <지킬박사와 하이드>,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늑대인간>과 같은 공포영화나, 똑같지만 다른 두 여인을 통해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진 두 개의 유럽을 그린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The Double Life Of Veronika> 등에서처럼 도플갱어를 다룬 작품들에서는 한 인물의 두 가지 모습이 그려지는데, 종종 자기의 분신이나 쌍둥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플갱어는 인간의 환상, 분신, 환영등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에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3. 모티프 유형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도플갱어는 정신적, 심리적 의미와 물리적 의미의 두 차원에서 나타난다. 정신적, 심리적 의미에서 도플갱어는 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능적이고 야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리적 의미에서 도플갱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같은 모습, 즉 자신의 분신이나 환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문학적 모티프로서 도플갱어는 자아의 분열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아의 분열과 통합 과정에서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플갱어는 분리된 두 인물이거나 한 인물의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사라지는 운명 공동체로 기능한다. 이러한 도플갱어의 문학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죽음의 사자

독일 설화에서 도플갱어는 죽음 직전에 혹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 죽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도플갱어를 보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해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때 도플갱어는 죽음의 사자로서 기능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 역시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음에 이르르게 되는데, 이 역시 도플갱어로 해석할 수 있다.

2) 불행한 사건의 경고 / 과거의 모습

때때로 도플갱어는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사건을 미리 예시해 줌으로써 불행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도플갱어는 선악의 구분을 넘어 한 인간의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자아 분열(흡혈귀, 늑대인간)

도플갱어는 한 인물의 무의식적 세계를 보여준다. 자아가 분열된 형태로 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와의 상반된 행위를 통해 내면의 심리적 욕망을 드러낸다. 도플갱어는 희미한 예감과 두려움, 간절한 소망과 환각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모습이며, 억압된 감정이 표현된 형태다. 따라서 도플갱어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되며 자아 분열과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개인의 소망과 사회의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그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또 다른 나를 통해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흡혈귀나 늑대인간과 같은 형태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모습이다.



늑대인간의 모습

4) 또 다른 자아

낭만주의 시대 도플갱어는 성숙한 자아인식의 계기가 된다. 이성과 감성의 두 세계를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던 시대에 도플갱어는 꿈속에서 만나는 자아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이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5) 유령 / 거울상 / 그림자

그 밖에 도플갱어는 작품 속에서 유령이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혹은 그림자로 등장한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대부분 꿈속에서 유령으로 나타나고, 사실주의 시대에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그림자로 나타나 서로 대화를 나누며 등장인물의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자아 분열, 자아도취
	정신적 충격과 억압
	정신질환

	죽음에 대한 공포
	현실과 상상(꿈과 환상)의 괴리
과정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함
	사회적, 정신적 이중생활
	죽음에의 예견
	고독과 소외, 고립
결과	또 다른 자아로의 변신
	불행한 사건의 해결 혹은 심화
	정체성 혼란
	죽음(자기 파괴)
	이상적인 자아 형성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브람빌라 공주 Prinzessin Brambilla』*

작가	에. 테. 아. 호프만 E. T. A. Hoffmann (1776-1822)
장르	소설
생성년도	1820
등장인물	지글리오: 극단의 배우로 스스로를 브람빌라 공주가 사랑하는 키아페리 왕자라고 믿는다. 지아친타: 재단사 보조로 지글리오의 연인, 화려한 옷을 입고 브람빌라 공주로 변한다. 키아페리: 아시리아의 왕자 브람빌라: 공주

5.1. 내용 요약

재봉사 지아친타는 카니발 전날 자신이 만들던 스페인 공주의 옷을 입고 순간 스스로 브람빌라 공주가 되었다고 상상한다. 스스로 위대한 비극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변변찮은 배우인 지글리오는 로마의 카니발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그는 스스로를 브람빌라 공주와 사랑에 빠진 키아페리 왕자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지글리오 스스로도 자

* 광정연(역): 브람빌라 공주, 책세상, 2004.

신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상상력의 산물인가 아닌가를 계속 의심한다.

환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혼동의 상태에서 지글리오는 꿈의 형상인 공주를 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자신의 환상을 서서히 외부로 표출시킨다. 그는 자신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제2의 자아가 가면을 쓰고 기타를 치며, 공주와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되면서, 순간 스스로를 아시리아의 왕자 키아페리로 여긴다. 자기 자신을 브람빌라 공주가 사랑하는 키아페리 왕자라고 믿음으로써 자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글리오는 자신의 제 2의 자아인 키아페리 왕자와 싸우는데, 이 결투에서 허영심 많은 비극 배우 지글리오는 죽고 키아페리 왕자가 승리한다. 하지만 카아페리 왕자는 자신의 분신인 지글리오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성적 이원성이라는 병에 걸린다. 그러나 키아페리 왕자가 샘물을 들여다보면서 존재의 이원성을 인정하고 웃음을 터뜨리자, 왕자는 자기 자신 안의 지글리오를 인정하면서 새롭게 거듭난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또 다른 자아로서의 도플갱어
- 서사구조: 현실과 상상의 괴리로 인한 자아분열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원인	현실과 상상의 괴리: 꿈과 환상 세계로의 진입
과정	사회적, 정신적 이중생활: 자신의 분신과의 싸우며 정체성 문제에 대해 고민
결과	또 다른 자아로의 변신: 새로운 자아를 인식하고 존재의 이원성 인정

6. 작품 목록

- 호프만 E. T. A. Hoffmann: 『브람빌라 공주 Prinzessin Brambilla』 (1821)
 슈토름 Theodor Storm: 『도플갱어 Ein Doppelgänger』 (1886)
 베르펠 Franz Werfel: 『거울 인간 Der Spiegelmensch』 (1920)
 카이저 Georg Kaiser: 『두 올리버 Zweimal Oliver』 (1926)
 뒤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 『도플갱어 Der Doppelgänger』 (1960)

7. 연계 모티프

공포, 꿈, 나르시시즘(자아도취), 변신, 소외, 악령, 유령, 죽음, 환각, 흡혈귀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소외 + 환각 + 도플갱어 + 정체성 + 죽음
스토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약물중독 상태에서 내면의 억압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다. 환각으로 인한 환상 세계에서 이 인물은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괴로워하도 죽음에 이른다.